

휴비스, 진보된 PTT “ESS” 출시

기존 ESPOL 비해 신축성 탁월 ... 다양한 용도 개발이 최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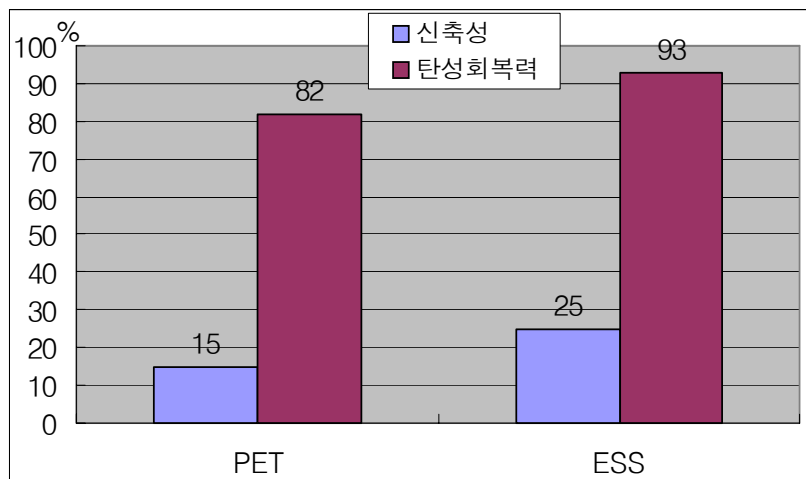
섬유 전문기업 휴비스(대표 조민호)가 기존의 ESPOL에 비해 탁월한 신축성을 가진 ESS(ESPOL-Stretch)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시장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ESS는 ESPOL과 마찬가지로 1,3-PDO(Propanediol)을 원료로 만들어지는데 1,3-PDO는 특이한 사슬구조를 갖는 반결정성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기존의 화학섬유보다 훨씬 더 자연에 가까운 감촉을 지니고 있고 염색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늘었을 때 완전히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최대치가 PET가 15%인데 반해 ESS는 25%까지 가능하고 탄성회복력도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외선이나 염소에 노출되더라도 색상 유지가 가능하고 세탁견뢰도도 높아 수영복용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ET와 ESS의 신축성과 탄성회복력 비교



자료) 휴비스

휴비스 관계자는 “처음에는 스포츠웨어나 수영복 중심의 수요가 많겠지만 다양한 용도 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 잠재력은 Polyester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6/18>